

2025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광주방송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41	5. 22(수) 17:30	KBC 광주방송 회의실	7/12	5	1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정신 위원장, 한희원 위원, 김경란 위원, 박민섭 위원, 신경식 위원, 이상채 위원, 박기홍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류영현 사장, 임광현 경영본부장, 구희선 기획정책심의실장, 김효성 보도국장, 신종문 편성제작국장
 - 경영진 외 : 기획정책심의실 차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시사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3	3					6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6			6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시사	[박영환의 시사1번지] 대전 시기에 여의도 정가의 주요 이슈와 정치적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청취자들은 복잡한 정치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진 패널들이 출연해 청취자가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게 함. 생방송을 들을 수 없는 청취자들을 위해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임. 유튜브에 부정적 댓글은 우려됨. 일부 패널의 편향성 우려,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하는 여의도 정가소식이라 출연자들과 다루는 이슈가 이해는 되지만, 지역의 정가 소식도 함께 다루주면 좋겠음	프로그램 론칭 시 진행자에게 중립성, 객관성 유지 요구함 현 진행자에게도 가장 강조한 점 앞으로도 객관성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으며, 생방송이므로 방송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5월
시사	[박영환의 시사1번지] 진행자의 중립성과 패널들에게 골고루 발언 기회를 주는 것 좋음.출연 패널들도 균형을 맞춘 듯. 극좌, 극우 아니어서 듣기에는 편안했음. 간혹 격렬할 때도 있어 청취자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강도 조절해주길 바람. 다른 시사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는 덜 함.	유튜브를 통해 동시 송출해 사실상 광역화임. 여의도 정가소식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동시에 지역의 소식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음. 유튜브에 일부 부정적 댓글이 있으나 그것도 관심을 갖고 청취한 청취자의 의견이므로 잘 새겨듣고자 함.	5월
시사	[박영환의 시사1번지] 객관성 유지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음. 서울에서 진행하는 프로인데, 듣다 보면 지역과 대한민국의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차이를 좁히고 타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 시대,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앞으로도 광주.전남의 구석구석 숨겨진 매력을 찾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방송 후 유튜브에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5월
교양	[도시락] 특색 있는 도시와 시골의 다양한 문화를 각 코너 별로 소개,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 앞으로 더 다양한 지역의 소식을 기대함. 금요일 저녁 방송이어서 본방 시청이 어렵긴 함.	출연자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내용의 정확성 점검해 부정확한 점은 진행자를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음.	5월
교양	[도시락] 지역밀착형 콘텐츠로 알차고 유익함.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늘었으면 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소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임. 수산업 종사자가 많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소식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널리 알려졌으면 함. 그러나 보험 “혜택”이란 표현은 부적절함.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험인데 적절한 표현을 찾아 써주길 바람. 실제 재해보험보상사례 소개가 적은 것 아쉬웠음.	광주전남의 좋은 관광지가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shots콘텐츠 가공 검토하겠음. 마당창극은 하반기에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방송할 예정임.	5월
교양	[도시락] 꿀잼남도 코너 재미있게 시청함. 장성의 택시관광편 고령층은 추억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 전화번호 안내해 주는 것 좋았음. 목포 편은 리포터의 재치가 돋보였음.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들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소개해 전남의 매력을 소개하는데, shots로 제작해 관광지 전남을 알렸으면 함. 광주시립창극단의 젊은 단원들의 마당극 준비 소개와 인터뷰 흥미로웠음. 젊은층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앞으로도 다루주면 좋겠음.	총 건수	6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수신 불량 해결방법 문의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인에게 수신상태 확인, 아파트 공청시설 사용 안내 담당부서 전화번호안내, 상담	5. 13	홈페이지 통해 문의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24.01 ~ 2025.12)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이소취	94.12.19	한국마사회		21.01.01 위촉
이슬이	93.09.26	광주폴리텍대학 교직원		21.01.01 위촉
허태민	91.02.05	한국전력공사		21.01.01 위촉
김혜지	94.07.12	-		21.01.01 위촉
정수현	98.04.25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22.04.01 위촉
명승희	98.11.26	(주)콕스탑앤푸드		24.03.18 위촉
심우정	72.07.05	도서관 사서		25.04.01 위촉
김동현	05.03.12	전남대학교 학생		25.04.01 위촉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운영실적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No	성명	생년	전/현직	추천단체	비고
1	정 신	62년	전남대학교병원장	시민학술	-
2	곽민섭	65년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고총괄변호사	변호사	-
3	김경란	65년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소비자	-
4	김봉철	59년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관련	-
5	김승희	67년	에듀플렉스 원장	청소년	-
6	김종선	72년	광산구 의사회장 첨단 우리병원 원장	인권	-
7	나윤영	74년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 교수	여성	-
8	박기홍	70년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	과학기술	-
9	박내춘	68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소외계층대변	-
10	신경식	66년	중흥건설 전무이사	경제	-
11	이상채	70년	광주은행 부행장	학부모	-
12	한희원	55년	서양화가 한희원 미술관 관장	문화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시사	4/28 따따부따에서는 광주 장애인 편의시설의 민낯 편은 최근 대형화재로 긴급 대피가 잦았던 만큼 이동장애인의 대피시설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었고 주로 대형건물의 지하시설이 긴급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었는데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이어서 장애인 통행 접근로의 경사로 규정을 지키지 못해 이에 대한 지자체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요구함. 법령과 장애인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는 옳은 지적이지만 규정을 지키고 있는 이동대피소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비교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음. 단시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이동장애인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광주전남의 규정을 지킨 대피시설을 찾아 보여줬다면 이동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보다 유익했을 것임	프로그램 취재시 자료조사를 좀 더 넓게 해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양	5/2 도시락에서는 담양 죽녹원에서 사운드워킹투어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대나무 수액이 찰랑거리는 소리를 진동 마이크를 통해 듣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이었으나 해설사와 리포터가 대나무에 진동마이크를 붙인 후 계속 흔들어야만 헤드셋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대나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됐음. 대나무에 관광객의 이름이 줄줄이 씌여있었는데, 낙서한 사람들을 꾸짖으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내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임. 담양의 좋은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옥의 티처럼 아쉬웠음	담당 제작진에게 의견 전달함. 앞으로 촬영, 영상 편집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양	5/3 호남호남인에서는 나주 출신의 궁중요리 연구가이자 발효음식과학 박사인 한영용 셰프를 만나 음식에 대한 가치관과 자라온 환경, 지금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생각을 들어봄. '시아본사' '한식의 세계화' '새마을 운동'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질문과 답을 통해 철학과 식재료의 가치를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담아내며 음식의 세계화를 향해 꾸준히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잘 담아냄. 진행자의 진중하고 차분한 진행이 주인공의 인생사를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 내어 꾸준한 노력으로 학력과 지역의 선입견과 한계를 넘어선 주인공을 통해 호남인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음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호남인을 계속 발굴, 방송하여 시청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5/5 kbc8뉴스에서는 완도 리조트서 일산화탄소 집단중독 사고를 보도함. 다른 방송사는 현장 스케치와 피해 가족 병원 인터뷰까지 더해 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집중한 반면 kbc는 구급차 긴급출동, 병원 응급실의 자료화면과 변동 없는 한 줄의 자막만 내보냄. 다음 날인 6일 모닝 와이드에서도 앵커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으로 리조트의 가스 감지기 부실에 대한 경찰 발표 내용을 보도함. 7일 kbc 8뉴스에서는 리조트 사고현장 사진 1장과 완도 경찰서의 자료화면만 내보내며 무성의한 영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해 아쉬웠음	앞으로 사건, 사고를 보도할 때는 현장에 더욱 밀착해 취재,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보도	5/7 kbc 8뉴스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 여가 지난 현재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하여 하늘길을 다시 열 예정인 무안국제공항에 대해 보도함. 국토부는 항공안전혁신 방안으로 무안국제공항 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경량을 철골구조로 교체 및 중단안전구역 확장, 조류탐지 레이더 최초 설치 등 안전혁신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함.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안전 확인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뉴스였음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음	○		
시사	5/12 따따부따에서는 국민폭력을 행사한 범죄자인 전두환을 미화하며 시민의 숲인 공원에 그의 호를 붙이고 심지어 생각을 복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의 물지각한 행정을 낱알이 보여줌. 이미 법이 심판한 계엄의 실체인 전두환 우상화 폐지에 광주.전남의 5.18단체의 목소리보다 그의 고향인 경남 합천 지역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내용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선입견과 편견이 아닌 중도를 잘 잡는 모습이었음. 5.18을 직접 겪지 않은 젊은 세대도 단죄되지 않은 과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5.18 기간에만 반짝하지 말고 일해공원과 전두환 생가에 낭비되는 혈세가 어떤 식으로 그 끝을 맺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주길 바람	왜곡된 진실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지 않게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5.18 정신과 가치가 올바르게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5.18이 있는 주간에는 5.18 4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버스 무료 증차운행 등을 보도해 시민들이 5.18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교양	5/16 도시락 초대석 코너에서는 관계자가 출연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꼭 필요한 궁금증에 대해 답을 해줘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유익했음.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보험 적용이 되는 분야와 어종, 보험금 지급 실사례는 표로 도식화해 구체적으로 보여줘 수산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도 왜 이 보험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알 수 있어 좋았음. 더불어 마지막 도시락퀴즈까지 덧붙여 한 번 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전남은 수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으로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그만큼 많은 것이 현실임. 앞으로도 지역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식과 정보를 계속 발굴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시사	5/17 알리오남도, 5/19 따따부따에서는 5.18을 폼페이하고 왜곡하는 도서가 학교도서관에 비치, 거리에는 현수막, 동상이 버젓이 세워져 있어 이를 막으려는 광주시의회 의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상위법 우선이라는 행정절차에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 방송됨. 도입부의 두 어르신은 5.18의 가치와 지금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짧은 인터뷰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지 깨닫게 해줌.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광주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방송에서 알려주면 좋겠음	담당부서에 의견 전달함 현실에 대한 지적 뿐만 아니라,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방송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보도	5/20 kbc 8뉴스에서는 전남 지역교권보호위 일반교사도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교사의 얼굴은 불러 처리하면서 학생들의 얼굴은 다 내보냄. 일반적으로 폭력장면이나 인권 침해, PPL을 막기 위해 모자이크, 블러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교사의 얼굴은 가리고 수업에 집중하는 고교생과 해맑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초등생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자료 화면을 쓴 건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임	앞으로 뉴스 영상 편집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동일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시사	5/26 따따부따 소아과 전문의 공백이 초래하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답을 고향사랑기부제로 찾은 곡성의 성공 사례는 정말 칭찬 받아야 할 노력과 성과임. 곡성을 벤치마킹하는 전남의 다른 지역들이 아직 성공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의료기관이 함께할 역할도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임. 전남의 소멸위험지수 자막에서 전국평균에 비해 수치가 적은데 왜 위험한 건지 생소해하는 시청자를 위해 소멸위험지수 산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없는 것은 아쉬웠음	지역소멸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법을 고민하고 찾기 위한 시리즈로 앞으로 제작, 방송시 시청자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음	○		